

예비 창업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창업성향 발달도 및 창업업종 선정에 관한 연구

최중석(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조교수)*

성상현(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예비 창업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창업업종 선정 및 창업성향 발달도 간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이다. 예비창업자의 성, 연령, 학력에 따른 외식업, 유통업, 서비스업, 인터넷사업의 업종선정 및 성취도, 인지도, 계획성, 성실성, 대인관계, 문제해결의 6가지 창업성향 발달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조사에 참가한 예비창업자 1,441명을 대상으로 기술통계 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구체적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 또는 대학졸업 이상에서 외식업 및 유통업, 인터넷사업에 비하여 서비스업을 선호하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성향 발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서비스업보다는 인터넷사업, 유통업, 외식업을 더 선호하였으며 20대 이하의 젊은 층에서는 다른 업종보다는 인터넷사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재학 이하에서는 서비스업보다는 외식 및 유통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자영업의 실패율이 높은 외식업 및 유통업을 선택하는 계층과 새로운 창업기회 창출 및 실패율이 적은 서비스업을 선택하는 계층이 구분되고 있음을 검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창업성향 발달도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창업자 스스로는 물론이거니와 실패율이 높은 창업, 특별한 노하우 없이 시작하는 창업을 지양하거나 줄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창업자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기술력과 노하우, 창업성향 등의 개발을 위한 개인적인 노력과 정부차원의 재교육 제공이 필요하며, 창업정책 지원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창업자 적합성에 관한 검사 및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핵심주제어: 예비창업자, 창업자 특성, 창업업종 선정, 창업성향 발달도

1. 서론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5). 우리나라는 제1차 IMF 금융위기 이후 고용 사정이 불안정해지고 저성장의 경제 구조로 돌아섬에 따라 새로운 성장 동력 및 고용 창출 방안으로 창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현 정부에서도 ‘창조경제’라는 모토 아래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창업은 기업으로 하여금 새로운 생산 및 유통, 서비스 활동을 수행하게 하여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생겨나고 가계의 수입을 증가시키게 한다. 가계의 수입 증대는 다시금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게 되어 창업은 결국 전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경제순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창업이 이처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창업의 성공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다. 신용보증기금의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부실기업 중에서 창업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높아지고 있어서 2008년에는 27.7%였던 것이 2010년에는 41.8%로 증가”하였고 “2012년에는 44.4%에 육박”하였다(Korea Credit Guarantee Fund, 2013). 또한 ‘자영업 비중의 적정성 분석 및 정책과제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5.8%로 여타 OECD 회원국의 15.2%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지적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자영업 과밀업종으로 소매업, 숙박업 및 음식점업”을 선정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과밀업종은 빠른 속도로 몰락하고 있으며 반면 교육·사업·개인서비스업 등 신성장 서비스산업에서 자영업 기회가 확대되는 특징”이 있다(Ju, Kim, Hong, Kim & Kang, 2010)고 하여 창업 성공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창업자란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과 변화를 통하여 통찰력을

* 제1저자,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조교수, 동국대학교-서울 경영학과 박사과정 수료, cjs@kangnam.ac.kr

** 교신저자, 동국대학교-서울 경영대학 교수, shsung@dongguk.edu

· 투고일: 2015-09-22 · 수정일: 2015-10-21 · 게재확정일: 2015-10-25

생성하는 사람이며 그것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조하는 사람”이다(Gartner, 1990). Brizek(2014)은 창업자 정신을 설명한 그의 논문에서, 창업자는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고 새로운 생산 방법을 발견 및 개발”하며 또 다른 혁신을 경제 속에 할당하는 ‘창조적 파괴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무엇인가를 위하여 “기존의 제품이나 방법을 끊임없이 대체 혹은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선진국이 200여 년 동안 해왔던 경제역사를 불과 60여 년 만에 이루어낸 원동력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역들이 가지고 있는 창업자정신 즉, “해야 한다는 사명감,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해내고야 말겠다는 도전정신, 같이 잘 살아야 한다는 동반정신”을 지적하기도 한다(Choi & Hwang, 2013). 이처럼 창업자의 특성은 창업성공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창업자 연구는 창업자 성향이 창업 의지나 사업 운영 또는 성과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해 왔다. 예를 들어, Seol & Hong(2013)은 ‘창업자 특성과 사업기회의 상황 간에 관한 연구’에서 창업자의 심리적 성향인 적극성, 창업자의 행위적 성향인 비전과 기회인지, 내외적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창업기회를 접하는 상황도 우연적이기 보다는 의도적임을 밝혔다. Park & Yang(2014)은 창업가의 성향 중에서 ‘혁신성향, 위험감수성향, 창의성향’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미국 중서부의 107개 소기업 오너의 특성과 전략방향, 혁신 간의 관계를 분석한 Kickul & Gundry(2002)는 “창업자의 주도적인 성향이 혁신적인 전략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을 밝혔고 “혁신적인 전략방향은 주도적인 성향과 혁신의 세 가지 유형인 혁신목표 선정, 혁신적인 조직체계, 혁신적인 경제지원 사이를 조절”한다고 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에서 아직은 미흡한 업종 선정과 관련된 부분을 탐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연구목적에 갖고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포화상태에 있는 외식업 및 소매업에서 자영업의 몰락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서비스업에서 자영업업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예비창업자 입장에서는 업종의 선정이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창업 업종 선정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창업자 성향의 발달 정도와 특징이 창업 성공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창업자 성향의 발달이 예비창업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이러한 예비창업자의 선정 업종에 따라 창업성향의 발달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차이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규명하고 창업자 개인에게 주는 시사점과 함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기존문헌 연구

2.1. 창업업종 및 창업자의 인구학적 특성

우리나라에서 2005년부터 2011년 사이에 창업한 기업체의 표본 6,026개를 추출하여 조사한 자료(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013)에 의하면, 창업자 연령대는 “장년층(40-50대)이 7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58.3%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력별로는 “고졸이하가 5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대졸이하가 4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전체기업 중에서 중소기업이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봐도 87% 이상이 중소기업 종사자로 구성(Statistics Korea, 2013)되어 있을 정도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중에서 창업기업이 차지하는 업종은 ‘제조업 8.7%’, ‘지식서비스업 14.6%’로 기술기반창업은 23.3%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도·소매업이 29.2%’, ‘숙박 및 음식점업이 17.1%’로 생활밀착형 소상공업이 46.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013). 서울지역 창업기업 15,095개를 분석한 자료(Seoul Credit Guarantee Foundation, 2014)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생활밀착형 소상공업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한·분식, 커피점, 치킨호프 등의 숙박 및 음식점업이 34.1%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의류 등의 도·소매업이 33.2%, 이·미용, 오락, 부동산 등의 서비스업이 2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 소상공인 창업자의 업종이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서 과밀하게 나타나고 있고 실패율이 높은 것이 현실이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창업의지 혹은 창업성공과 관계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창업자의 특성과 창업업종 선정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문헌은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나라 창업자의 업종 분포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업종 과밀현상은 결국 해당 업종의 실패율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창업자의 특성과 창업업종의 선정 관계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찾아보는 일’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창업업종 선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먼저 기존에 연구된 창업자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능력, 창업성향 등 다양한 측면의 창업자 특성요인과 창업의지 혹은 창업성과 간의 관계를 연구한 문헌들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Table 1> 창업자의 특성 관련 선행연구

원인 및 결과변수의 관계	연구 결과	연구자
성별↔가정환경과 사회적인 배경, 교육수준과 정부정책간의 차이	차이 있음	Narayanasamy, Rasiyah & Jacobs(2011)
가정 및 사업의 중목관리 여부↔성별, 소득, 거주지의 거리, 개인적인 민족과 사업의 재무적인 성공 인식	차이 있음	Niehm & Miller(2005/2006)
통제위치, 위험성향, 자기 주도성과 직무경험→벤처 기회 인식	유의한 영향	Yan(2010)
기업가적 능력과 기술 및 기능적 능력→재무적 성과	유의한 영향	Kim & Chung(2007)

학력, 창업경험, 성취욕구, 위험감수성향, 통제위치, 관리적 능력→비재무적인 성과	유의한 영향	Yoon & Park(2007)
창업경험→위험대처 및 성장 인식	유의한 영향	
산업 근무경험→성취욕구	유의한 영향	
여성 기업가정신(적극성, 위험감수)→매출액, 시장점유율	유의한 영향	Choi & Lee(2007)
창업경험, 성취욕구, 위험감수성향, 창업 준비기간→자기효능감 및 창업성과	유의한 영향	Kang & Ha(2012)
사업계획 완성도와 전문가 활용도 및 업종 차별화 정도→기업성과	유의한 영향	Park, Lee & Lee(2010)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창업자 특성과 업종선정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창업자 업종선정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아울러 창업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 업종선정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혹은 예측 하에 본 연구를 탐색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2.2. 창업자의 성향발달

창업자의 성향과 관련된 연구논문은 ‘자기주도성, 혁신성, 성취욕구, 위험감수, 개방성, 성실성, 창의성’ 등과 같이 창업자의 심리적인 성향과 ‘관련분야 경험 및 전문성, 사회적 능력, 대인관계, 문제해결, 네트워킹 지향’ 등과 같은 행위적인 성향에 대하여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미국 남동부에서 수의전문대학 상경계 학생 351명을 대상으로 ‘신경성, 외향성, 개방성, 호감성, 성실성’의 5요인 성격검사를 이용한 창업자의 특성이 창업경력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논문(Brice, 2006)에서는 “높은 성실성이 내적보상 요소인 삶의 만족과 독립성 보상과 관련된 창업경력에 유의미한 관심”이 있음을 밝혔고, 아울러 “높은 개방성이 내적보상 요소인 삶의 만족과 관련된 창업경력에 유의미한 관심”이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5요인 모두 외적 보상 요소인 직업적 수익과 관련된 창업경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의 183개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 위험감수, 주도성과 같은 창업자의 특성과 시장 지향성 간의 관계를 연구한 문헌(Benito, Benito & Gallego, 2009)에 의하면 “창업자 특성과 시장 지향성 간에는 강한 관계”가 있으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향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성과에도 강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미국 Lynchburg 지역의 1,2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Gupta & Maita, 2013)에서도 ‘성취도 및 위험감수’ 등과 같은 창업자의 특성이 ‘기업 성과와 운영전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영전략은 창업자 특성과 기업 성과 사이에서 조절 효과”가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반면, Hunter(2012)는 ‘창업가정신에 대한 몇 가지 오해’라는 그의 논문에서 “창업가들이 정부 및 미디어에 의하여 과장 홍보되어 영웅적인 활동이 강조되어 왔고 신화처럼 소개되어

왔다”고 전제하면서 실제로는 “창업기업에 있어서 혁신은 매우 적으며 높은 성장에 대한 야망을 갖는 창업자도 매우 적다”고 하였다. 또한 공통적인 창업자 유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창업자는 “종종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였다. 또한, 신생기업은 오래 살아남지 못하며, 성공적인 방식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는 창업자들이 위험을 회피하며 성공적인 제품을 만들어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어지는 않는다고도 하였다. Bae, Hur & Kim(2012)이 우리나라 요리관련 전공 대학원생 및 요리학원 수강생 246명을 대상으로 창업자의 특성을 ‘자신감, 창의성, 성취욕구’로 구분하여 외식창업의 성공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연구 결과 ‘자신감, 성취욕구, 창의성’의 순서로 외식업 창업의 성공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Park & Kim(2014)은 우리나라 서울소재 소기업 대표 218명을 대상으로 ‘정직성, 정서성, 외향성, 원만성, 성실성, 개방성’의 6가지 성격요인이 ‘창업가정신 및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이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라는 창업가정신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창업가정신이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

Jo & Lee(2012)는 우리나라 대학생 및 직장인 창업자 304명을 대상으로 창업특성(성취욕구, 위험감수성, 사업전략)이 창업성과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창업특성 3가지 모두 창업성과 및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전략은 창업특성과 성과사이에서 매개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Cheong & Ha(2012)는 우리나라 예비창업 공직자 502명을 대상으로 ‘개인적특성(성취욕구, 위험감수, 자기효능감)’과 ‘경력(관리지향, 기술지향, 사업지향, 안정지향, 자율지향)’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개인적특성 중에서 성취욕구와 위험감수성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력중에서 사업지향성과 자율지향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과 같이 창업자의 여러 특성요인 중에서 특히, 창업성향에 관한 연구문헌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Table 2> 창업자의 성향발달 관련 선행연구

원인 및 결과변수의 관계	연구 결과	연구자
높은 성실성, 높은 개방성→삶의 만족과 독립성 보상 높은 개방성→삶의 만족	유의한 영향	Brice(2006)
혁신, 위험감수, 주도성→시장 지향성 혁신, 위험감수, 주도성+시장 지향성→기업의 성과	유의한 영향	Benito, Benito & Gallego(2009)
성취도 및 위험감수→기업 성과와 운영전략 성취도 및 위험감수↔기업 성과사이에서 운영전략이 조절	유의한 영향	Gupta & Maita(2013)
자신감, 창의성, 성취욕구→외식업 창업의 성공	유의한 영향	Bae, Hur & Kim(2012)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 및 기업성과	유의한 영향	Park & Kim (2014)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사업전략→창업성과 및 창업의도 창업특성→성과사이에서 사업전략이 매개	유의한 영향	Jo & Lee(2012)
성취욕구와 위험감수성, 사업지향성과 자율지향→창업의지	유의한 영향	Cheong & Ha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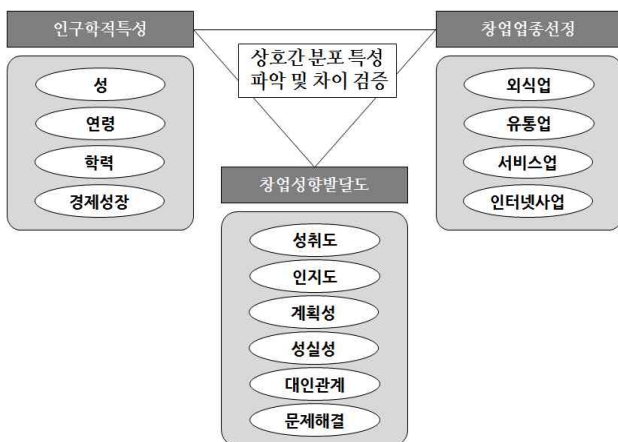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정리해 보면 창업자에게 필요한 성향으로 첫 번째는 성취욕구, 주도성, 열정, 외향성, 위험감수, 진취성, 용기 등으로 표현되는 소위 ‘성취도’, 두 번째는 성실함, 원만함, 노력, 정서성, 사려 깊음 등과 같은 ‘성실성’을 들 수 있다. 세 번째는 관련분야 창업 경험 혹은 직무 경험과 운영상에 있어서의 전략적인 능력이나 기술능력과 같은 ‘전문성(또는 인지도)’, 네 번째는 사회적인 능력이나 네트워크, 사람관계, 전문가 활용 등과 관련된 ‘대인관계’,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업 혹은 조직의 운영상에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적응력, 관리능력, 문제해결, 의사결정, 논리적 사고 등과 관련된 ‘문제해결’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5가지 성향에 예비창업자 입장에서 미래의 사업 준비를 위한 정보 수집 및 분석력, 그리고 체계적인 정리 등과 관련된 ‘계획성’을 추가하여 창업자의 성향 발달 정도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창업자의 창업성향 발달도는 인구학적 특성 및 선정 업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혹은 예측 하에 본 연구를 탐색적으로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창업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업종에 따른 창업성향 발달도 분포를 파악하고, 인구학적인 속성 및 업종에 따른 창업성향 발달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III. 연구방법론

3.1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예비창업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창업업종 선정, 그리고 창업성향 발달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며, 이를 연구의 개념적 모형으로 도식하면 다음과 같다.



<Figure 1> 연구모형도

연구를 위해 창업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이에 따른 업종선정 및 창업성향 발달도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아울러 변수들 사이에 가시적인 차이가 보일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추가적인 검증을 실시하였다.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창업업종 선정에 대한 분석은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고,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창업성향 발달도 및 창업업종 선정에 따른 창업성향 발달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3.2 데이터 수집 및 변수의 조작적 정의

3.2.1 데이터 수집

본 설문조사를 위하여 별도의 홈페이지를 오픈하여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본 검사는 지난 13년간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뿐만 아니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창업스쿨의 수강생, 수도권에서 운영된 창업박람회, 온라인 창업신문 구독자, 창업컨설팅 기관의 홈페이지와 연동하여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창업과목이 개설된 대학의 수강생들이 온라인을 통하여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지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본 조사에 참여한 총 응답자는 1,479명에 달하였으며 시스템 상에서 일부 중복 입력된 경우,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총 1,44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관심 갖는 업종을 파악하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관심을 갖는 업종에 대하여 30자 이내’로 자유롭게 적게 하였다. 조사결과 예비창업자들은 관심업종에 대하여 간단히 ‘외식업’, ‘커피숍’, ‘서비스업’, ‘인터넷쇼핑몰’ 등으로 적은 경우도 있었지만 ‘투자비 2천만원 이하의 영업전략 수립 컨설팅 사업’이라든가 ‘20평 내·외의 음식점 혹은 패스트푸드점 창업’, ‘법률 및 회계 관련 서비스업’, ‘투자비 1천만원의 인터넷 약세사리 쇼핑몰’ 등과 같이 세부적으로 기재한 경우가 많았다. 창업자의 성향발달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취도, 인지도, 계획성, 성실성, 대인관계, 문제해결’의 6가지 특성을 나타내는 지문을 각각 구성하여 5점 척도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3.2.2 변수의 조작적 정의

창업자의 인구학적 특성 구분을 위하여 성별로는 남자와 여자로, 연령별은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의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학력은 대학재학 이하 그룹과 대학졸업 이상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아울러 경제성장률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제성장률이 3.3%였던 2014년을 제외하고 3.7%이상 이었던 7개 연도(2002, 2004, 2005, 2006, 2007, 2010, 2011)에 응답한 그룹과 3.0%이하였던 5개 연도(2003, 2008, 2009, 2012, 2013)에 응답한 그룹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종속변수인 예비창업자의 관심 업종을 ‘음식 및 주점업(이하, ‘외식업’으로 통칭), 도·소매업(이하, ‘유통업’으로 통칭), 서비스업, 인터넷사업’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희망하는 응답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관

계로 업종분류에 있어서 ‘인터넷사업’을 분류기준의 하나로 두었다. 두 가지 이상의 업종에 관심을 보인 경우에는 맨 처음에 언급한 업종으로 구분하였다. 소수의 인원이 무역업 혹은 IT 개발업이라고 표기한 경우가 있어서 각각 유통업 혹은 인터넷사업으로 구분하였다. 제조업 및 건설업의 경우는 극히 적은 응답자가 답변을 하여 세부 업종분류에서 제외하였다.

아울러 업종 구분이 애매한 경우에는 식음료 관련성, 가시적인 제품 보유, 개인의 능력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 인터넷 사용 정도에 따라서 각각 외식업, 유통업, 서비스업, 인터넷사업으로 구분하였다. 이상의 분류기준으로 나눈 응답자 현황은 아래와 같다.

<Table 3> 응답자 현황

항목	구분	빈도	비율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성	남성	928	64.4%	경제성장률	고 성장기	723	51.2%
	여성	513	35.6%		저 성장기	688	48.8%
연령	20대 이하	628	43.6%		분류 제외	30	
	30대	505	35.0%	관심업종	외식업	441	37.1%
	40대	242	16.8%		유통업	257	21.6%
	50대 이상	66	4.6%		서비스업	370	31.1%
학력	대재 이하	154	33.8%		인터넷사업	121	10.2%
	대졸 이상	301	66.2%		업종 미정	252	
	미 응답	986		총 응답수(N)	1,441		

* 학력, 지역은 필수 응답문항이 아닌 관계로 미 응답자 있음. 경제성장률 3.3%(2014년)는 분류에서 제외, 1,441명중 252명은 관심업종 미정

IV. 연구결과

4.1 기술통계 분석

4.1.1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선정업종 기술통계

응답자 유형별 업종분포 비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서비스업에 관심을 갖는 비율이 높고,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인터넷사업에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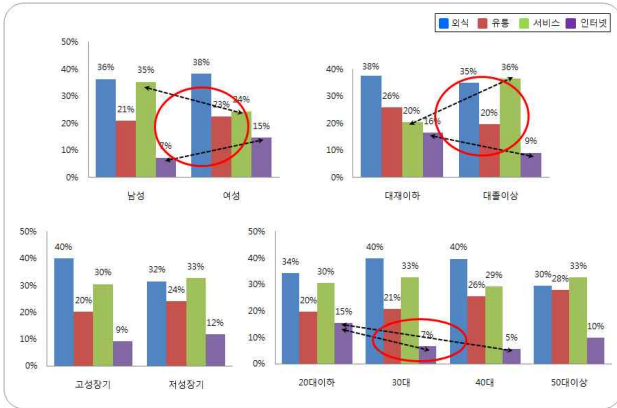
심을 갖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로 20대 이하는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인터넷사업에, 30대 및 40대는 외식업에, 50대 이상은 유통업에 관심을 갖는 비중이 높았다. 학력을 기준으로 보면 대졸 이상인 경우가 대재 이하인 경우에 비하여 서비스업에 관심이 많았다. 경제성장률에서는 외식업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업종 별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Table 4> 응답자 유형별 선정업종 분포

항목	구분	외식업	유통업	서비스업	인터넷사업	합계
성	남성	36%	21%	35%	7%	100%
	여성	38%	23%	24%	15%	100%
연령	20대 이하	34%	20%	30%	15%	100%
	30대	40%	21%	33%	7%	100%
	40대	40%	26%	29%	5%	100%
	50대 이상	30%	28%	33%	10%	100%
학력	대재 이하	38%	26%	20%	16%	100%
	대졸 이상	35%	20%	36%	9%	100%
경제성장률	고 성장기	40%	20%	30%	9%	100%
	저 성장기	32%	24%	33%	12%	100%

이상의 분포비율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가시적인 차이가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이 원으로 나타냈다. 인구학

적 특성에 따라 업종선정에 차이(확률)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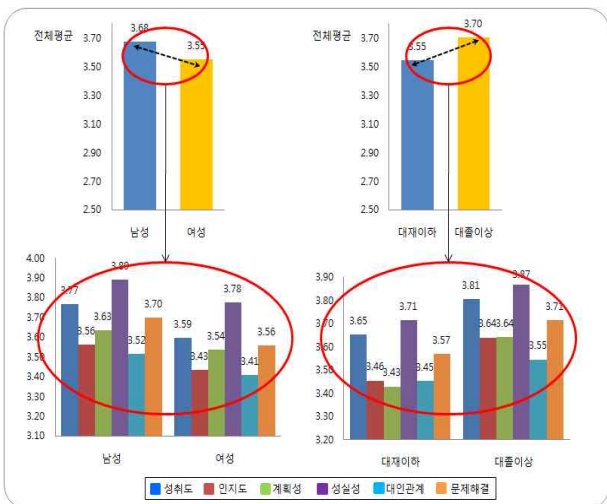


<Figure 2> 응답자 유형별 업종분포도

<Table 5> 응답자 유형별 성향발달 점수분포

항목	구 분	성취도	인지도	계획성	성실성	대인관계	문제해결	평균
성	남성	3.77	3.56	3.63	3.89	3.52	3.70	3.68
	여성	3.59	3.43	3.54	3.78	3.41	3.56	3.55
연령	20대 이하	3.71	3.45	3.57	3.79	3.54	3.64	3.62
	30대	3.72	3.57	3.61	3.88	3.46	3.67	3.65
	40대	3.64	3.54	3.64	3.91	3.33	3.61	3.61
	50대 이상	3.71	3.56	3.68	3.96	3.47	3.65	3.67
학력	대재 이하	3.65	3.46	3.43	3.71	3.45	3.57	3.55
	대졸 이상	3.81	3.64	3.64	3.87	3.55	3.71	3.70
경제성장률	고 성장기	3.72	3.58	3.60	3.86	3.44	3.64	3.64
	저 성장기	3.69	3.46	3.60	3.84	3.50	3.66	3.62

이상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성별 및 학력별로 가시적인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그 차이가 유의미한지 파악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Figure 3> 성별 및 학력별 성향발달 점수분포도

4.1.2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창업성향 발달도 기술통계

응답자 유형별 창업성향 발달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아래의 표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의 발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그룹이 대재이하의 학력을 가진 그룹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성장률 및 연령대별로는 가시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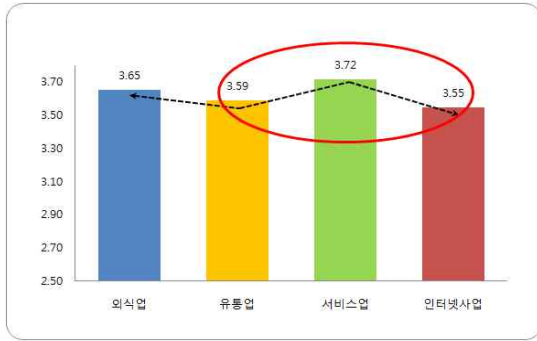
4.1.3 응답자 선정업종에 따른 창업성향 발달도 기술통계

응답자가 선택한 업종별 창업성향 발달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아래의 표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서비스업에서 유통업이나 인터넷사업보다 창업성향 발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응답자 선정업종별 성향발달 점수분포

구 분	성취도	인지도	계획성	성실성	대인관계	문제해결	평균
외식업	3.70	3.57	3.65	3.85	3.49	3.65	3.65
유통업	3.68	3.48	3.52	3.83	3.41	3.60	3.59
서비스업	3.80	3.64	3.66	3.93	3.55	3.73	3.72
인터넷사업	3.63	3.47	3.51	3.73	3.38	3.57	3.55

업종별 평균 성향발달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서비스업종이 평균 3.72점으로 가장 높고 인터넷사업이 3.5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업종별 평균 점수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파악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일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Figure 4> 응답자 선호업종별 평균 성향발달분포도

4.2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분석은 변수들 사이의 연관관계를 파악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으로써 어떤 변수가 다른 변수와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실시한다. 각 척도의 특성에 따라서 명목척도간의 유관계수(contingency coefficient) 분석, 명목척도 및 등간척도간의 상관비(η) 분석, 등간척도간의 피어슨의 r 상관계수로 분석(Cha & Cha, 2013, p.355)한 결과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Table 7> 변수 간 상관관계분석

구분	성	연령	학력	경제성장률	창업성향발달도						업종선정	
					성취도	인지도	계획성	성실성	대인관계	문제해결		평균
성	1											
연령	.183**	1										
학력	.294**	.135*	1									
경제성장률	.072**	.215**	.178**	1								
창업성향발달도	성취도	.168**	.059	.138**	.030	1						
	인지도	.100**	.091**	.145**	.101**	.733**	1					
	계획성	.095**	.066	.192**	.009	.658**	.616**	1				
	성실성	.117**	.119**	.144**	.020	.786**	.630**	.794**	1			
	대인관계	.097**	.135**	.077	.053**	.794**	.615**	.585**	.632**	1		
	문제해결	.135**	.044	.129**	.013	.855**	.708**	.747**	.790**	.833**	1	
평균	.135**	.045	.153**	.020	.919**	.833**	.832**	.873**	.853**	.938**	1	
업종선정	.147**	.159**	.178**	.092*	.123**	.114**	.133**	.128**	.109**	.121**	.134**	1

* : p<0.05, ** : p<0.01

4.3 업종선정 및 창업성향 발달도 차이검정

4.3.1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업종선정 차이분석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업종선정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표에서 보면 유의수준 0.01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인터넷사업과 비교하여 서비스업 및 외식업, 유통업을 선택할 확률은 각각 2.895배, 1.904배, 1.85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유통업 및 외식업보다 서비스업을 선정할 확률이 1.561배, 1.521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

성이 남성보다 자영업의 실패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외식업 및 유통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도 밝힌 것처럼 창업 실패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자영업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서비스업을 선택할 확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전에 예측한 바와 같이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 업종선정에 차이가 있음을 검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Table 8>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B	표준오차	Wald	유의확률	Exp(B)	
1(외식업)	[gender=1]	.644	.207	9.656	.002	1.904
2(유통업)	[gender=1]	.618	.223	7.691	.006	1.855
3(서비스업)	[gender=1]	1.063	.215	24.398	.000	2.895
-2 로그 우도(모형적합도): 63.352**			R ² (Nagelkerke): .024			
gender=1(남성), 비교 gender=2(여성), 업종참조범주: 4(인터넷사업)						
	B	표준오차	Wald	유의확률	Exp(B)	

1(외식업)	[age_div=1]	-.997	.247	16.314	.000	.369
2(유통업)	[age_div=1]	-.898	.266	11.392	.001	.407
3(서비스업)	[age_div=1]	-.915	.251	13.288	.000	.400
-2 로그 우도(모형적합도): 35.673**				R ² (Nagelkerke): .022		
age_div=1(20대 이하), 비교age_div=2(30대), 업종참조범주: 4(인터넷사업)						
		B	표준오차	Wald	유의확률	Exp(B)
1(외식업)	[age_div=1]	-1.180	.338	12.208	.000	.307
2(유통업)	[age_div=1]	-1.294	.353	13.393	.000	.274
3(서비스업)	[age_div=1]	-.994	.345	8.304	.004	.370
-2 로그 우도(모형적합도): 33.610**				R ² (Nagelkerke): .027		
age_div=1(20대 이하), 비교age_div=3(40대), 업종참조범주: 4(인터넷사업)						
		B	표준오차	Wald	유의확률	Exp(B)
1(외식업)	[EDU=1]	-.517	.348	2.210	.137	.596
2(유통업)	[EDU=1]	-.321	.373	.743	.389	.725
3(서비스업)	[EDU=1]	-1.173	.372	9.954	.002	.310
-2 로그 우도(모형적합도): 30.520**				R ² (Nagelkerke): .035		
EDU=1(대재이하), 비교EDU=2(대졸이상), 업종참조범주: 4(인터넷사업)						
		B	표준오차	Wald	유의확률	Exp(B)
2(유통업)	[EDU=1]	.196	.285	.472	.492	1.216
3(서비스업)	[EDU=1]	-.656	.284	5.335	.021	.519
4(인터넷사업)	[EDU=1]	.517	.348	2.210	.137	1.677
-2 로그 우도(모형적합도): 30.520**				R ² (Nagelkerke): .035		
EDU=1(대재이하), 비교EDU=2(대졸이상), 업종참조범주: 1(외식업)						
		B	표준오차	Wald	유의확률	Exp(B)
1(외식업)	[EDU=1]	-.196	.285	.472	.492	.822
3(서비스업)	[EDU=1]	-.852	.314	7.368	.007	.427
4(인터넷사업)	[EDU=1]	.321	.373	.743	.389	1.379
-2 로그 우도(모형적합도): 30.520**				R ² (Nagelkerke): .035		
EDU=1(대재이하), 비교EDU=2(대졸이상), 업종참조범주: 2(유통업)						

** : p<0.01

또한 위 결과표에서 보면 유의수준 0.01에서 20대 이하 연령대에서 30대와 비교하여 외식업 및 유통업, 서비스업보다는 인터넷사업을 선택할 확률이 2.71, 2.46, 2.50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대 이하 연령대와 40대를 비교해 본 경우에는 외식업 및 유통업, 서비스업보다는 인터넷사업을 선택할 확률이 3.26, 3.65, 2.70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력이 높을수록 인터넷사업 및 유통업, 외식업에 비하여 서비스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3.2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창업성향 발달도 차이분석

먼저 성별에 따른 창업성향 발달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6가지 성향 발달도에 대한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분산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공분산의 동일성을 검증

하여야 한다. 아래 표의 하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Box의 M 동일성 검증이 유의한 결과로 나타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 Lim, 2013, p.278). 이는 집단 간 크기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는 각 표본의 크기가 크고 오차분산의 동일성 검증결과와 엄격한 유의수준의 잣대를 가지고 분산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또는 집단의 차이가 크고 동일성에 위배될 경우에 Pillai의 트레이스 유의성 검증 결과값을 사용하여 유의성 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Wilks의 람다, Hotelling의 트레이스, Roy의 최대근을 이용하여 검증할 수 있다(Hair, Black, Babin & Anderson, 2010, p.464). 따라서 추가적으로 오차분산의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 아래 표 우측 끝과 같이 오차분산의 동질성이 6가지 성향에서 모두 검증되었으며 Pillai의 트레이스 검증 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성별에 따라 6가지 창업성향 발달도인 ‘성취도’, ‘인

지도’, ‘계획성’, ‘성실성’, ‘대인관계’, ‘문제해결’ 모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9> 성별 창업성향 발달도 분산분석 결과

gender ↓	개체 간 효과(차이)검증				오차분산 동일성 검증	
	F	유의확률	R ²	Adjusted R ²	F	유의확률
성취도	41.576	.000	.028	.027	3.439	.064
인지도	14.445	.000	.010	.009	.014	.905
계획성	13.099	.000	.009	.008	.481	.488
성실성	20.061	.000	.014	.013	3.125	.077
대인관계	13.581	.000	.009	.009	.030	.862
문제해결	26.641	.000	.018	.017	2.170	.141

* 공분산의 동일성 검증 → Box의 M: 36.597, F: 1.734, df1: 21, df2: 4222887.992, 유의확률: .020
 * 차이의 검증 결과 → Pillai의 트레이스 F: 8.393, 가설자유도: 6, 오차자유도: 1434, 유의확률: .000, R²: .034(Wilks의 람다, Hotelling의 트레이스, Roy의 최대근의 유의확률도 모두 .000로 차이가 확인됨)

다음으로 학력에 따른 창업성향 발달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6가지 성향 발달도에 대한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아래 표의 하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Box의 M 공분산 동일성 검증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오차분산의 동일성을 분석한 결과 ‘성실성’을 제외하고 모두 변수에서 동일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Pillai의 트레이스 유의성 검증을 확인한 결과 유의확률이 .001값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성실성’의 경우도 분산분석의 결과값을 분석에 사용해도 됨을 알 수 있다.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유의수준 0.01에서 학력에 따라 ‘성취도’, ‘인지도’, ‘계획성’, ‘성실성’, ‘문제해결’의 5가지 성향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인관계’의 경우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0> 학력별 창업성향 발달도 분산분석 결과

EDU ↓	개체 간 효과(차이) 검증				오차분산 동일성 검증	
	F	유의확률	R ²	Adjusted R ²	F	유의확률
성취도	8.840	.003	.019	.017	3.719	.054
인지도	9.713	.002	.021	.019	.506	.477
계획성	17.297	.000	.037	.035	3.389	.066
성실성	9.613	.002	.021	.019	4.367	.037
대인관계	2.707	.101	.006	.004	.073	.787
문제해결	7.692	.006	.017	.015	1.687	.195

* 공분산의 동일성 검증 → Box의 M 값: 28.486, F: 1.334, df1: 21, df2: 366354.448, 유의확률: .140
 * 차이의 검증 결과 → Pillai의 트레이스 F: 3.655, 가설자유도: 6, 오차자유도: 448, 유의확률: .001, R²: .047(Wilks의 람다, Hotelling의 트레이스, Roy의 최대근의 유의확률도 모두 .001로 차이가 확인됨)

이러한 결과는 사전에 예측한 바와 같이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 창업성향 발달도에 차이가 있음이 밝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3.3 창업업종 선정과 창업성향 발달도 간의 차이분석

이어서 업종선정에 따른 창업성향 발달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6가지 창업성향 발달도의 평균값에 대한 일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을 위하여 여러 집단에 따라 종속변수의 오차분산이 동일함을 검증하여야 한다. 아래 표의 하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Levene의 오차분산 동일성 검증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 Lim, 2013, p.203).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유의수준 0.01에서 ‘선호업종’에 따라 창업성향 발달도 평균값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1> 업종별 창업성향발달도 평균의 분산분석 결과

업종 ↓	개체 간 효과(차이)검증				오차분산 동일성 검증	
	F	유의확률	R ²	Adjusted R ²	F	유의확률
성향평균	7.221	.000	.018	.015	0.506	.678

* 오차분산의 동일성 검증 → Levene의 동일성 검증 ; F: .506, df1: 3, df2: 1185, 유의확률: .6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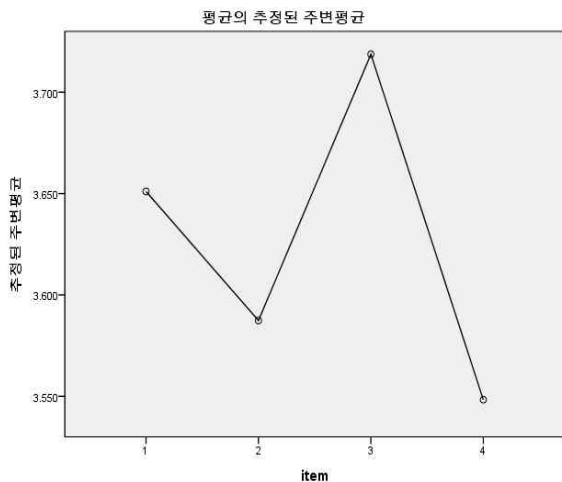
업종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 사후검증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났다. 결과에 따르면 창업성향 발달도의 평균값은 유통업 및 인터넷사업을 선택한 사람보다 서비스업을 선택한 사람에서 더 높게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서 연구한 인구학적 특성과 업종선정 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서비스업을 선택한 사람이 자영업의 실패율이 높은 유통업을 선택한 사람보다 창업성향 발달도가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사전에 예측한 바와 같이 선정업종에 따라서 창업성향 발달도에 차이가 있음이 밝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Table 12> 업종별 창업성향 발달도 평균의 사후검증 비교

(0) item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1	2	.06369	.033729	.355	-.02545 .15282
	3	-.06768	.030301	.154	-.14775 .01240
	4	.10273	.044108	.120	-.01384 .21929
2	1	-.06369	.033729	.355	-.15282 .02545
	3	-.13136*	.034901	.001	-.22359 -.03913
	4	.03904	.047386	1.000	-.08619 .16427
3	1	.06768	.030301	.154	-.01240 .14775
	2	.13136*	.034901	.001	.03913 .22359
	4	.17040*	.045010	.001	.05145 .28935
4	1	-.10273	.044108	.120	-.21929 .01384
	2	-.03904	.047386	1.000	-.16427 .08619
	3	-.17040*	.045010	.001	-.28935 -.05145

* 1:외식업, 2:유통업, 3:서비스업, 4:인터넷사업, * : p<.05

다음의 그림은 업종별 창업성향 발달도 평균값에 대한 도표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Figure 5> 업종별 창업성향 발달도 평균값 도표

V. 결론

정부기관의 선행연구에 의해서도 나타났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 실패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특히 외식업 및 소매업에서 자영업의 몰락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에서 자영업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예비창업자 1,441명을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예비창업자의 창업업종 선정이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많은 연구에서 창업성향의 발달이 창업성공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창업자 성향의 발달이 예비창업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업종 선정에 따라 창업성향의 발달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 차이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인터넷사업과 비교하여 서비스업 및 외식업, 유통업을 선택할 확률은 각각 2.895배, 1.904배, 1.85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유통업 및 외식업보다 서비스업을 선정할 확률이 1.561배, 1.521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 이하 연령대에서 40대 및 30대와 비교하여 인터넷사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력이 높을수록 인터넷사업 및 외식업, 유통업에 비하여 서비스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대학재학 이하가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보다 자영업의 실패율이 높은 외식업 및 유통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자영업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서비스업을 선택할 확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대학졸업 이상이 대학재학 이하의 학력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창업성향 발달도에 대한 연구에서도 남성이 ‘성취도’, ‘인지도’, ‘계획성’, ‘성실성’, ‘대인관계’, ‘문제해결’의 6가지 모든

부분에서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으며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성취도’, ‘인지도’, ‘계획성’, ‘성실성’, ‘문제해결’에서 대학재학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선정된 업종에 따라서 창업성향 발달도의 평균값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유통업 및 인터넷사업을 선택한 사람보다 서비스업을 선택한 사람에서 창업성향 발달도가 더 높게 나왔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 업종 선정 및 창업성향의 발달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최근 정부 산하기관의 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자영업의 실패율이 높은 외식업 및 유통업을 선택하는 계층과 새로운 창업기회 창출 및 실패율이 적은 서비스업을 선택하는 계층이 구분되고 있음을 검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서비스업을 선택한 사람의 창업성향 발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창업을 화두로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창업 실패는 개인의 몰락뿐만 아니라 국가적 기회비용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실패율이 높은 창업, 특별한 노하우 없이 시작하는 창업을 지양하거나 줄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정책적으로는 창업기회 혹은 창업업종 선정에 대한 검증 방법과 창업성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창업자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기술력과 노하우, 창업성향 등의 개발을 위한 재교육을 제공하고 창업정책 지원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창업자 적합성에 관한 검사 및 전문적인 상담의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최소한 규모가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창업 이후의 단계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교육과 경영자문이 계속해서 제공된다면 좋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창업을 준비하는 개인이 이러한 점을 다시 한 번 인식하여 본인의 적성과 능력, 기술력과 노하우를 고려하여 창업의 기회를 발견하고 업종을 선정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창업자 적합성에 관한 검사 및 전문적인 상담, 창업 교육과 경영자문 등의 정책 지원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배우려는 자세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 중 하나는 자료의 수집에 있어서 창업자의 직업이나 경력, 창업경험, 실패 혹은 성공경험, 창업자금, 결혼 유무, 업종의 세부적인 분류 등 보다 다양한 요인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인구학적 속성을 포함하고 업종의 하위분류를 세분화하여 연구할 수 있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창업성향 발달도의 세분화된 지표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도 요청된다. 본 연구가 예비 창업자의 업종선정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창업자와 업종선정, 창업자와 창업성향 발달 사이의 관계에 관한 폭넓은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

- Bae, H. S., Hur, G., & Kim, Y. G.(2012), A Study on the Effects of Success Factors of New Food Service Businesse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Journal of Hotel & Resort*, 11(2), 377-393.
- Benito, O. G., Benito, J. G., & Gallego, P. A. M.(2009), Role of entrepreneurship and market orientation in firms' success,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43(3/4), 500-522.
- Brice Jr, J.(2006), Can personality dimensions influence entrepreneurial occupation preference? An exploratory study of dispositional influences on cognitive processes, *Academy of Entrepreneurship Journal*, 12(2), 1-28.
- Brizek, M. G.(2014), Explaining corporate entrepreneurship: a contemporary literature investigation, *Journal of Management & Marketing Research*, 14, 1-13.
- Cha, G. B., & Cha, K. O.(2013), *Empirical Research Methods in Social Science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Cheong, Y. H., & Ha, K. S.(2012), A Study Individual Characteristic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Startup Business Candidate: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Career of Startup Business Candidate, *The Journal of Distribution Management Association*, 15(4), 41-53.
- Choi, B. I., & Hwang, I. H.(2013), *Entrepreneurship for the Creative Economy*, Seoul: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 Choi, T. Y., & Lee, S. S.(2007), A Study of relations between CEO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of Woman's Enterprise, *The Journal of Business and Venturing*, 2(3), 123-143.
- Gartner, W. B.(1990), What are we talking about when we talk about entrepreneurship?,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5(1), 15-28.
- Gupta, A., & Muiita, S. R.(2013),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Personality, Performance, Job Satisfaction and Operations Strategy: An Empirical Examin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and Management*, 8(2), 86-95.
- Hair Jr, J. F., Black, W. C., Babin, B. J., & Anderson, R. E.(2010), *Multivariate Data Analysis(7th ed.)*, New Jersey: Prentice Hall.
- Hunter, M.(2012), On some of the misconceptions about entrepreneurship, *Economics, Management, and Financial Markets*, 7(2), 55-104.
- Jo, Y. J., & Lee, S. H.(2012), A Study on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Performance, *Digital Policy Research*, 10(5), 143-154.
- Ju, H., Kim, S. K., Hong, S. I., Kim, J. H., & Kang, S. U.(2010), *Adequacy analysis and policy research projects of self-employed share(Policy Research, 10-07)*, Sejong: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 Kang, Y. U., & Ha, K. S.(2012), Characteristics of Small Business Start-Up and Effect of Preparation of Small Business Start-up on Business Performance: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Digital Policy Research*, 10(9), 239-251.
- Kickul, J., & Gundry, L. K.(2002), Prospecting for strategic advantage: The proactive entrepreneurial personality and small firm innova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0(2), 85-97.
- Kim, W. J., & Chung, H. Y.(2007),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 Characteristics and the Performance of Small Firm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2(3), 33-60.
- Korea Credit Guarantee Fund.(2013), *Start-ups sector characteristics and trend analysis(KODIT Warranty Trend Report, 2013(1))*, Daegu: Korea Credit Guarantee Fund.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2015), *Suppor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Establishment Act*, Retrieved July 15, 2015 from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A4%91%EC%86%8C%EA%B8%B0%EC%97%85%EC%B0%BD%EC%97%85%EC%A7%80%EC%9B%90%EB%B2%95#iBgcolor0>.
- Lee, H. S., & Lim, J. H.(2013),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Seoul: JypHyunJae.
- Narayanamy, K., Rasiah, D., & Jacobs, C. J.(2011), An Empirical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Gender Differences In Entrepreneurship, *The International Business &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10), 17-29.
- Niehm, L. S., & Miller, N. J.(2005/2006), Entrepreneurship and the Impact of Managerial Role on Family Business Success, *Journal of Research in Marketing and Entrepreneurship*, 7(8), 75-94.
- Park, C. R., Lee, N. J., & Lee C. S.(2010), Effects of Characteristics of Business Incubating Process of Small & Micro Companies on the Business Performance, *The Journal of Financial and Accounting Information*, 10(1), 133-155.
- Park, J. W., & Kim, W. J.(2014),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HEXACO Personality, Entrepreneurship and the Firm Performance,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6(2), 147-168.
- Park, J. Y., & Yang, H. S.(2014),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Focusing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completed Prefounder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2), 97-107.
- Seol, B. M., & Hong, H. S.(2013), A Study on the Business Opportunity Source and Search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 of Entrepreneur,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8(1), 19-28.
- Seoul Credit Guarantee Foundation.(2014), *2011-2013 Seoul start-up review*, Seoul: Seoul Credit Guarantee Foundation.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2013), *2013*

start-up companies survey report(Approval(discussion) No.14216), Daejeon: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Statistics Korea.(2013), *Company quantities and workers by company size, region and industry classification*, Retrieved July 15, 2015 from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K#jsClick.

Yan, J.(2010), The Impact of Entrepreneurial Personality Traits on Perception of New Venture Opportunity, *New England Journal of Entrepreneurship*, 13(2), 20-35.

Yoon, B. H., & Park, J. B.(2007),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formance of Venture Business and CEO's Characteristics, *The Journal of Business and Venturing*, 2(3), 145-168.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ial Candidates, their Developmental Level of Entrepreneurial Traits and Choice of Business Field

Choi, Joong Seog*
Sung, Sang Hye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o exploratory analysi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ial candidates and their developmental level of entrepreneurial traits as well as the choice of business field. We analyzed gender, age, and educational level of the entrepreneurial candidates and their developmental level of entrepreneurial traits such as achievement tendencies, degree of awareness, planning skills, sincer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problem-solving skills. Industry fields were classified into 4 types: restaurants, retail, services, internet busines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es, logistic regressions, and variance analyses were performed about the sample data gathered from 1,441 persons since the year 2002 to 2014.

Males and highly educated above university preferred service industry than restaurant, retail, and internet business. Females preferred internet business, retail, and restaurants than service industry field. The young persons under 20 showed higher probability to choose internet business. The college level and high school graduates preferred retail and restaurants than service industry. The developmental level of entrepreneurial traits were higher in male and highly educated.

By this study, we could find the divide between groups with high and low probabilities of failure: restaurants and retail field showed higher failure probability than service industry in the business fields of self-employed. Furthermore, we could identify that entrepreneurial traits also had been develop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groups. It is necessary to refrain from entering into the fields with high failure probabilities as well as to provide supporting policies to build the systems and environment to reduce the cases to begin new business without special knowledges and know-hows. The competency development training should be provided in the early stage of start-ups considering their entrepreneurial traits and aptitudes. Not only the assessment of the entrepreneurial traits but also professional counseling from initial stage are necessary.

Keyword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s, developmental level of entrepreneurial traits, choice of business field, start-up, entrepreneurship

* First Author, Assistant Professor, Industry-Academy Cooperation Foundation, Kangnam University(Phd Completion,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Dongguk University-Seoul), cjs@kangnam.ac.kr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ongguk Business School, Dongguk University-Seoul, shsung@dongguk.edu